



“사슴은 육성, 발전시켜야 할 축산업”

- 녹용과학심포지엄서 축유연 정규성 소장 주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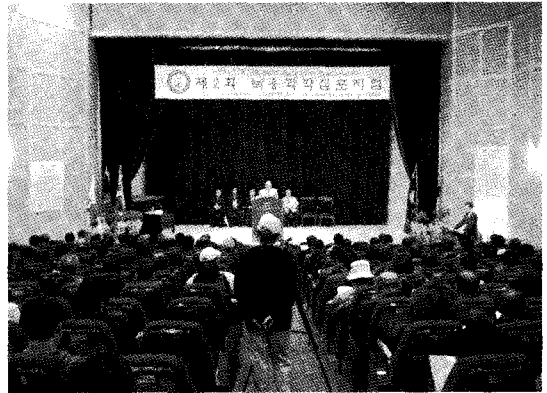
양육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인식, 산업과 학계, 정부가 공동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축산물유통연구소 정규성 소장은 건국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2회 녹용과학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위해 산업, 학계, 정부가 연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소장은 “국내 사슴사육은 농가수나 사육두수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를 구성,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장은 △ 세계 최대 녹용 소비 시장인 국내 시장 △ 관목류 등 사료자급이 가능한 축종 △ 분변량이 적은 친환경 축종 △ 현대인에게 맞는 저지방 고칼로리 사슴고기 생산 등의 이유를 들어 사슴이 육성해야 할 축산업임을 확실히 했다.

한편 본회(회장 김수근)와 건국대학교 한국 녹용연구센터(소장 전병태)가 4월29일부터 1박 2일간 공동 주최한 제2회 녹용과학심포지엄에는 양육인을 비롯, 국내외 녹용관련 연구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 녹용과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규성 소장 외에도 7명의 국내외 사슴관련 연구자들이 각각 △ 녹용의 성분과 생리활성 △ 녹용의 생리활성 성분 △ 녹용의 특성과 조성분 △ 아동발달 및 성장에 대한 녹용의 효능 △ 양육업에서 자조금제도의 기능과 중요성 △ 양육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 한국의 녹용관련 연구현황 등을 발표했다. <본문 관련기사 게재>

본회 김수근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녹용 판매 부진 타개에 도움이 되고 국내 녹용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수입녹용과의 국제 경쟁력 향상이 제고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양일보**